

#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 The Self-esteem according to Friendships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irls

김미란·최정미  
전남과학대학 · 초당대학교 아동복지학과

Kim, Miran · Choi, Jung Mi  
Chonnam Science College · Dept. of Child Welfare, Chodang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bout tendency of friendships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irls, especially how they differ with respect to grades and how self-esteem differ in terms of friendships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ir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regarding general tendencies of friendships and of self-esteem, this study showed that most adolescents had best friends, close friends and a group of friends. Also, almost all had more than three close friends, hung around with a group of friends consisting of 5 to 8 young people, interacted with friends more than once a week. Most adolescents perceived 'social acceptance' as most important, followed by general self-worth, conduct behavioral, cognitive ability, physical appearance and the physical ability. Second,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f-esteem based on grade. Third, this study show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elf-esteem according to whether the adolescents had best friends, how many close friends they had, how many had a group of friends, and how frequently they interacted with friends.

**Key words** : friendships characteristics, self-esteem

### I. 서론

청소년의 발달적 변화와 적응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의미 있는 타인 및 다양한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판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Coopersmith, 1967; Harter, 1982, 1983; Rosenberg, 1979, 1985).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수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간주되는 개념으로,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 과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청소년 시기의 매우 중요한 발달과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성적, 심리사회적 변화로 인한 심한 긴장과 혼란을 경험하며, 아동기와는 다른 다양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므로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년기의 시작과 함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보내고, 친구간의 관계가 다수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수와 상호작용하려 하며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의 주된 영향 요인이 개인이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경험임을 감안해 볼 때, 친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도 청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라는 발달과업과 관련하여 청소년기의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Choi, Jung Mi  
Tel : 062) 530-1317 Fax : 062) 530-1329  
E-mail: shuma523@hanmail.net

특히 현대 사회는 복잡 다양하고 변화의 폭이 넓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비행, 학교폭력, 일탈행동, 자살행동과 같은 외면적 부적응 행동이나 공격성, 우울증, 불안정과 같은 내면적 부적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친밀한 친구관계가 또래에 의한 집단 괴롭힘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며(Hodges, Boivin, Viatro, & Bukowski, 1999), 또래배척으로 자아지각이 낮아지는 것을 증대하고(Vandell & Hembree, 1994),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한 아동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로움이나 우울, 학교 부적응과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킨다는(Furman & Robbins, 1985; Parker & Asher, 1993) 결과들이 보고됨으로써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외면적, 내면적 부적응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청소년의 친구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Sullivan(1953)은 인간발달에 있어서 타인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며,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려는 욕구는 인간에게 자신의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 요구에 의해 인간 발달단계를 구분하였는데, 4단계인 청소년기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이 필요한 시기로, 아동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폭넓게 하는 것이었다면 청소년기는 관계를 깊게 하는 시기로 보았다. 청소년기에는 친구에 대한 충실함과, 서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인 친밀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Buhrmester와 Furman(199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아동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친구들에게 털어놓았고 동반자, 자기확신,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함에 있어 부모보다 친구에게 더 많이 의존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친구는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서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주고, 성인의 압력이나 간섭에 대항하는 힘을 주는 준거집단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친구관계는 평등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화를 학습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친구관계(friendship)는 또래관계(peer relation)속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써, 또래관계가 비자발적인 2차적 집단으로 구성원들의 수가 많고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적은 관계로 정의되는 반면에, 친구관계는 상호선택에 의한 친밀한 양자관계로서 또래관계와 비교해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Bukowski & Hoza, 1989; Epstein, 1983; Parker & Asher, 1993). Epstein(1983)에 의하면 친구관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1차적 집단으로 비교적 적은 수로 구성되며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 빈도와 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또래관계는 반드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집단 내 관계로 구성원이 많고, 친구관계에 비해 상호작용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특징을 나타낸다. 즉 대부분의 아동들은 또래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서로 만족할 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한 명 또는 몇 명의 또래들과 특별한 친구관계를 가지는데, 즉 친구관계는 또래관계에서 좀 더 발전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Hartup과 Stevens(1997) 또한 친구관계는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하며 생애 주기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고, 특히 청소년의 발달과 복지, 특히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Berndt(1982)는 생애주기 중 청소년의 친구 관계의 중요성을 사춘기와 관련된 생리적 변화에 따른 관심의 전환, 주변인적인 사회적 위치로 인한 평등한 관계형성의 기초제공, 인지적 변화에 따른 상호관계의 중요성 지각 등을 들어 강조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많고(신재은, 2000), 남학생보다 더 많은 친구 수를 가지고 있다(도현심, 2000). 또한 12-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Buhrmester 와 Carbery(1992)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동성친구와 상호작용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내용에서도 자기노출과 정서적 지원의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일부에만 국한되어 연구되었던 친구관계를 단짝친구 유무, 집단친구 수나 상호작용빈도 등을 포함하여 더 깊이 있게 살펴봄으로써 여학생의 친구관계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차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분야로서, 초기의 연구들은 실제 친구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지고 있는 친구관계의 개념(이주옥, 1984; 박신연, 1989)이나 친구에 대한 기대(Raisman & Shorr, 1978; Selman, 1981)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친구 수, 관계 유형 등 극히 일부에만 국한하여 연구되고 있으므로 단짝친구 유무, 집단친구 수나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 등을 포함한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친구관계의 특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이은혜·고윤주, 1999; 오원정, 1999; Mendelson & Aboud, 1999),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같은 자기평가에 보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일반적인 선택 또는 배척에 의해 결정되는 또래의 지위나 수용도를 중심으로 한 또래관계로 진행되었으나, 또래관계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또래간 상호작용의 지속성과 친밀함으로 변화하는(Hetherington & Parke, 1993; Sullivan, 1953)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유능성 동기를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자아기능의 효율성을 강화하고(Harter, 1982),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는 선행연구들(Bukowski et al., 1989; Vandell et al., 1994)을 바탕으로 청소년기는 또래관계보다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관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자아존중감을 단일영역으로 간주함에 따라 전반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분석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Coopersmith, 1967; Rosenberg, 1979). 따라서 친구관계 특성의 세부적인 특성들이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들에서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필요하리라 본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는(이진화, 1993; 정순지, 1999; Nettleman, 1987; Wigfield, Eccles, Iver, Reuman & Midgley, 1991)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친구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는 초등학교 5학년과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중학교 2학년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친구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년에 따라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친구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초·중학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 초·중학교 여학생의 학년에 따라 친구관계의 특성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3.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 3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무응답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N=293)

변인	구분	N(%)	
		아버지	어머니
부모 연령	만 40세 이하	66(23.0)	165(57.7)
	만 41-45세	161(56.1)	104(36.4)
	만 46세 이상	60(20.9)	17( 5.9)
부모 교육 수준	중졸이하	22( 7.7)	35(12.3)
	고졸	136(47.7)	179(63.0)
	전문대졸이상	127(44.6)	70(24.7)
학 년	초등학생	141(48.1)	
	중학생	152(51.9)	

### 2. 검사도구 및 자료분석 방법

#### 1) 친구관계의 특성

선행연구들(이은혜 등, 1999; Adams & Blieszner, 1994)을 참조하여 친구수와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빈도 등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친구수는 자신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동성친구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로서 단짝친구, 친한 친구수, 집단 친구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친구관계의 상호작용 빈도에 관한 척도는 Berndt 등(1995)의 척도를 토대로 본 연구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한 후 아동학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안면 타

당도를 검토한 결과, 1문항을 첨가하여 6문항으로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alpha$ )는 .72로 나타났다.

## 2) 자아존중감

대상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1985)의 아동용 자아지각 척도(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에 기초해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한 이은혜와 신숙재, 송영주(199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사회적 수용, 신체적 능력, 외모, 인지적 능력, 행동품행의 다섯 가지의 자존감 하위영역에 대한 자아지각과 하나의 총체적 자아가치 평가를 위한 전반적 자아가치감 등 6개의 하위영역,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인지적 능력 .85, 신체적 능력 .86, 외모 .75, 사회적 수용 .79, 행동품행 .68, 전반적 자아가치 .85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chi^2$ ,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 1) 친구관계의 특성

여학생의 친구관계의 특성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단짝친구 유무에서 단짝친구가 있는 여학생(91.8%)이 단짝 친구가 없는 여학생(8.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수에 있어서는 4명 이상(30.7%), 2명(25.6%), 1명(20.5%), 3명(19.1%), 없다(4.1%) 순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친한 친구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함께 어울려 노는 집단 친구 수에 있어서는 5-8명(32.4%), 13명 이상(25.6%), 9-12명(22.9%), 1-4명(17.1%), 없다(2.0%)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은 5-8

명 이상의 친구와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함께 어울려서 노는 집단친구가 있는 여학생(98.0%)이 집단 친구가 없는 여학생(2.0%)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간 상호작용빈도 수준에 있어서는 상호작용 빈도가 상집단(28.8%), 중집단(41.4%), 하집단 (28.3%)으로 대부분의 여학생이 친구와 상호작용을 일주일에 1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여학생이 단짝친구, 친한친구, 집단친구가 있으며 친구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단짝친구(8.1%), 친한 친구(4.1%)나 집단친구(2.0%)가 없는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친구관계가 청소년의 심리 발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의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는 초·중학교 여학생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2>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의 경향 (N=293)

변인	빈도(%)
단짝친구	유 269 (91.8)
	무 24 ( 8.2)
친한 친구 수	없다 12 ( 4.1)
	1명 60 (20.5)
	2명 75 (25.6)
	3명 56 (19.1)
	4명 이상 90 (30.7)
집단 친구 수	없다 6 ( 2.0)
	1-4명 50 (17.1)
	5-8명 95 (32.4)
	9-12명 67 (22.9)
	13명 이상 75 (25.6)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	상(4점 이상) 84 (28.8)
	중(3-4점 미만) 121 (41.4)
	하(3점 미만) 84 (28.8)

### 2) 자아존중감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여학생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 점수 중 사회적 수용영역과 전반적 자아가치, 행동품행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은 중간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인지적 능력, 외모, 신체적 능력 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은 중간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된 결과 전반적 자아가치감,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비교적 높고, 학업능력과 운동능력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박영애와 최영희, 박인전(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6학년을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과목, 사회적 능력 및 운동 능력에 대한 중요도를 6개월 간격으로 조사한 연구(Eccles et al., 1989)에서 시기와 관계없이 사회적 능력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김희화(1998) 연구결과에서도 친구관련 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3>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N=293)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인지적능력	2.93	0.82
신체적능력	2.74	0.90
자아 외모	2.79	0.82
존중감 사회적 수용	3.55	0.80
행동품행	3.22	0.63
전반적 자아가치	3.44	0.93

2. 초·중학교 여학생의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

1) 친구관계 특성

학년에 따라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년에 따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친한 친구 수( $p<.05$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1명, 2명의 경우는 초등학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3명, 4명 이상의 경우는 중학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학년에 따른 자아존중감 (N=293)

변인	인지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학년	초등학교	19.41	4.79	17.04	5.26	17.99	4.89	22.17	4.88	19.91	3.66	22.87	5.12
	중학교	15.86	4.46	15.86	5.52	15.55	4.70	20.54	4.56	18.79	3.81	18.63	5.18
t값	6.57***		1.88		4.34***		2.96**		2.58*		7.04***		

\* $p<.05$ , \*\* $p<.01$ , \*\*\* $p<.001$

<표 4>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의 특성 (N=293)

변인	유무	학년		$\chi^2$
		초등학교N(%)	중학교N(%)	
단짝친구	유	218(84.82)	226(87.60)	0.83
	무	39(15.18)	32(12.40)	
친한 친구수	없다	20(7.78)	17(6.59)	9.77*
	1명	58(22.57)	38(14.73)	
	2명	64(24.90)	58(22.48)	
	3명	51(19.84)	53(20.54)	
	4명 이상	64(24.01)	92(35.66)	
집단 친구수	없다	6(2.33)	6(2.33)	2.09
	1~4명	45(17.51)	47(18.22)	
	5~8명	75(29.18)	75(29.07)	
	9~12명	51(19.84)	62(24.03)	
친구관계	13명 이상	80(31.13)	68(26.35)	3.10
	상(4점 이상)	98(38.13)	80(31.01)	
상호작용	중(3-4점 미만)	80(31.13)	94(36.43)	3.10
	하(3점 미만)	79(30.74)	84(32.56)	

\* $p<.05$

2) 자아존중감

학년에 따라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학년에 따라서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인지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하위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특성에 따라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능력은 친구관계의 특성 관련변인 중 단짝친구, 친한 친구수, 집단 친구수에 따라 인지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에서 단짝친구(p<.01), 친한 친구수(p<.001), 집단 친구수(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짝친구가 있는 여학생이 단짝친구가 없는 여학생보다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으며, 친한 친구수와 집단 친구수가 많을수록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수가 많으며, 집단 친구수가 많은 여학생의 경우에 인지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신체적 능력은 친구관계의 특성 관련변인 중 단짝친구, 집단 친구수,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에 따라 신체적 능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능력에서 단짝친구(p<.01), 집단 친구수(p<.01),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짝친구가 있는 여학생이 단짝친구가 없는 여학생보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으며, 집단 친구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 상호

작용 빈도가 중집단, 상집단, 하집단 순으로 신체적 능력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친구가 있고, 집단 친구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여학생의 경우에 신체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외모는 친구관계의 특성 관련변인 중 집단 친구수,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에 따라 외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에서 집단 친구수(p<.001),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집단 친구수가 많을수록 외모에 대한 지각이 높았으며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가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외모에 대한 지각 높았다. 따라서 집단 친구수가 많고,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여학생의 경우에 외모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적 수용은 친구관계의 특성 모두가 사회적 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수용에서 단짝친구(p<.001), 친한 친구수(p<.001), 집단 친구수(p<.001),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짝친구가 있는 여학생이 단짝친구가 없는 여학생보다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

<표 6>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N=293)

변인		인지적능력			신체적능력			외모			사회적수용			행동품행			전반적자아가치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M	SD	D
단짝 친구	유무	17.79	4.99		16.69	5.35		16.85	4.97		21.74	4.57		19.51	3.71		20.82	5.53	
		15.04	3.60		13.30	5.44		15.56	4.40		16.39	4.51		17.22	3.94		18.83	5.71	
	t값	2.58**			2.91**			1.49			5.40***			2.83**			1.66		
친한 친구수	없다	13.25	5.38	C	14.50	5.85		16.75	1.27		14.67	4.31	C	16.17	4.91	B	17.42	7.98	B
	1명	16.67	4.73	B	15.17	5.41		16.27	5.34		19.52	4.83	B	18.90	4.23	A	20.20	5.84	A
	2명	16.95	4.78	AB	16.81	5.04		16.29	5.01		20.17	4.67	B	19.35	3.50	A	20.13	5.33	A
	3명	17.70	4.27	AB	16.95	5.28		17.63	4.76		22.80	3.69	A	19.77	2.97	A	22.23	5.20	A
	4명이상	19.19	5.05	A	16.88	5.68		17.10	4.66		23.46	3.92	A	19.76	3.81	A	20.88	5.22	A
	F값	5.88***			1.58			1.35			18.40***			2.85*			2.49*		
집단 친구수	없다	12.50	3.27	C	10.67	4.18	B	15.17	4.79	B	14.00	3.95	D	17.00	5.59		19.00	8.53	B
	1~4명	15.52	4.95	B	16.56	6.19	A	15.46	5.21	B	18.98	5.68	C	18.86	3.88		19.54	5.95	AB
	5~8명	17.01	4.57	B	15.55	5.12	A	15.87	4.56	AB	20.46	4.42	BC	18.92	3.72		19.98	5.20	AB
	9~12명	17.55	4.54	AB	16.34	4.70	A	16.73	4.20	AB	22.06	3.41	AB	19.46	3.16		20.34	5.77	AB
	13명이상	20.07	4.78	A	17.99	5.50	A	18.77	5.28	A	23.91	4.04	A	20.24	4.01		22.71	4.87	A
	F값	9.89***			4.04**			5.19***			15.84***			2.20			3.72**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	상	18.46	4.82		16.67	5.74	AB	18.11	4.91	A	22.96	4.65	A	20.30	3.70	A	22.62	5.30	A
	중	17.51	4.68		17.20	5.17	A	16.58	4.85	B	21.69	3.86	A	19.54	3.59	A	20.64	5.27	B
	하	16.70	5.27		15.22	5.24	B	15.60	4.85	B	19.22	5.34	B	18.10	3.82	B	18.83	5.66	C
	F값	2.77			3.54*			5.78**			15.00***			7.87***			10.55***		

\*p<.05 \*\*p<.01 \*\*\*p<.001 D:Duncan 집단분류 : 하<M-SD, M-SD≤중≤ M+SD, M+SD<상

각이 높았으며, 친한 친구수와 집단 친구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가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수가 많으며, 집단 친구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여학생의 경우에 사회적 수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행동품행은 친구관계의 특성 중 단짝친구( $p < .01$ ), 친한 친구수( $p < .05$ ),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단짝친구가 있는 여학생이 단짝친구가 없는 여학생보다 사회적 수용에 대한 지각이 높았으며, 친한 친구수가 1명 이상인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가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행동품행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친구가 있고, 친한 친구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여학생의 경우에 행동품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반적 자아가치는 친구관계의 특성 중 친한 친구수( $p < .05$ ), 집단 친구수( $p < .01$ ),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수가 1명 이상인 여학생이 없는 여학생보다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았고, 집단 친구수가 많을수록 집단친구수가 없는 경우보다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았다. 또한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가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 순으로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지각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한 친구수가 많으며, 집단 친구수가 많으며,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여학생의 경우에 전반적 자아가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학년에 따라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친구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여학생이 단짝친구와 친한 친구, 집단 친구가 있었으며 친구관계의 일반적 경

향은 비교적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3-4명 이상이며, 집단친구의 수는 5-8명 이상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친구와 상호작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단짝친구(8.1%), 친한 친구(4.1%)나 집단친구(2.0%)가 없는 여학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친구가 없는 경우는 2.0%인 반면 친한 친구가 없는 경우가 4.1%이고 단짝친구가 없는 경우는 8.1%나 된다는 것은 요즘 여학생들의 친구를 사귀는 형태가 집단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소수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다수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컴퓨터의 보급, 학업성취 조성 등의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들의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보다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지적인 것을 요구하는 단짝친구나 친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가 오히려 힘들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 볼 수 있으며, 친밀한 친구관계가 집단 괴롭힘을 중재하고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선행연구(Furman & Robbins, 1985; Hodges, Boivin, Viatro & Bukowski, 1999; Parker et al., 1993)를 고려해 볼 때 인간관계 증진 훈련이나 효율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친밀한 친구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집단 친구의 수가 5-8명 이상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3명 이상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볼 때 요즘 여학생들의 친구를 사귀는 형태의 흐름이 집단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급에는 또래 집단이 있으며 청소년기에는 소속감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수용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반적 자아가치, 행동품행, 인지적 능력, 외모, 신체적 능력 순으로 지각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인지적 능력, 외모, 신체적 능력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이 낮게 나타났는데, 인지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기에 학업내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학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에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한창 운동을 즐기고 활동적이어야 할 청소년기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데다, TV나 컴퓨터의 보급으로 운동량의 부족과 적절한 여건 부재로 인한 운동능력 발달 부족이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 중 외모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규모 표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발육과 매력을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Levinson(1986)의 연구결과와 비교적 일치한 결과이다. 또한 최근에 서울 시내 중고생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대들은 외모가 뛰어난 친구(35.3%), 공부 잘하는 친구(33.5%)를 가장 부러운 친구로 생각하였다고(한겨레신문, 2000년 9월 13일자) 보고한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신체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신체상을 형성하기가 쉬운 반면에, 신체상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에 특히 여학생에게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낮은 지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여학생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년에 따른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친구관계 특성 중 친한 친구 수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친한 친구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신주혜, 1999; 오원정, 1999; Feiring & Lewis, 1991; Raisman & Shorr, 1978)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친구에 대한 친밀감의 욕구가 증가하고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친구관계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 능력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친한 친구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신체적 능력을 제외한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인지적 능력, 외모,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 전반적 자아가치 영역에 대한 자아존중감 지각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에 대한 지각이 낮아진다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이(이진화, 1983; 정순지, 1990; Beneson et al., 1986; Eccle ea al., 1989; Harter, 1988; Wigfield et al., 1991)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령이 어릴수록 자신의 능력을 실제 이상으로 과대 평가하다가 발달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기 능력에 대한 판단의 정확성이 생김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게 된다는 Stipek(198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이 발달과 적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자아존중감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적 배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셋째, 친구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인지적 능력에서는 단짝친구, 친한 친구수, 집단 친구수에

따라, 신체적 능력에서는 단짝친구, 집단 친구수,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에 따라, 외모에서는 집단 친구수와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에 따라, 사회적 수용은 모든 친구관계 특성에서, 행동품행은 단짝 친구, 친한 친구수, 친구관계 상호작용빈도에 따라, 전반적 자아가치는 친한 친구수와 집단 친구수, 친구관계상호작용빈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지하며, 즉 단짝친구, 친한 친구, 집단 친구, 친구관계 상호작용 빈도가 많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에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여학생들은 5-8명 이상으로 된 비교적 큰 친구 집단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최근의 청소년들의 집단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청소년들은 소속감의 욕구가 강한 반면에 또래에 대한 동조 경향도 크기 때문에 건전한 집단 친구관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여학생들은 사회적 수용, 행동품행과 같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는 높게 지각하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 외모나 신체적 능력과 같은 개인적 측면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학업성취 지향적인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운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자청소년들의 획일화된 미적 기준이나 외모중심 가치관 대신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의 일반적 특성,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은 학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여학생에게는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친구관계 특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의 하위영역별로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계획과 지도방향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초기 여자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알아보았는데 발달의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여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며,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는 시기로, 과거 청소년에 비해 인터넷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동성친구, 이성친구와 인터넷 친구간에 나타날 수 있는 친구관계의 기능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 친구관계 특성, 자아존중감

### 참고 문헌

-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신연(1989). 아동의 친구관계 개념과 집단내 인기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 최영희 · 박인전(2000). 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1(3), 1-19.
- 신주혜(1999). 단짝 친구관계와 학교생활 적응-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원정(1999). 친구관계의 질 및 친구 관계 망과 아동의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혜 · 고윤주(1999).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일반적 변인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37(3), 201-219.
- 이은혜 · 신숙재 · 송영주(1992). 국민학교 3-6학년 아동을 위한 자아지각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생활과학논집, 6, 175-191.
- 이주옥(1985).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1993). 연령, 성별, 사회측정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부모의 책임 지각.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지(1990). 지능에 대한 개념 및 자아능력지각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2000. 9. 13일자.
- Adams, G. R. & Blieszner, R.(1994). An integrative conceptual framework for friendship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1, 163-184.
- Beneson, J. F. & Dweck, C.(1986). The development of trait explanation and self-evaluation in the academic and social domains. *Child Development*, 57, 1179-1187.
- Berndt, T. J.(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447-1460.
- Berndt, T. J. & Keefe, K. A.(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Buhrmester, D. & Furman, W.(1990). Perceptions of siblings relationships during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87-1398.
- Bukow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15-45)*. New York: Wiley.
-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H. Freeman.
- Eccles, J. S. & Wigfield, A., Flanagan, C. A., Miller, C., Reuman, D. A., & Yee,D.(1989). Self-concepts, domain values and self-esteem : Relation and change at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57(2), 283-310.
- Epstein, J. L.(1983). Examining theories of adolescent friendships. In J. L. Epstein & N. L. Karweit(Eds), *Friends in school*. NY : Academic press
- Feiring, C. & Lewis, M.(1991).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 Gender differences and the relation to school competence. *Sex Roles*, 25(3/4), 237-253.
- Furman, W. & Robbins, P.(1985). What's the point? : Selection of treatment objectives. In B. Sc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41-45)*. New York: Stinger-Vering.
- Harter, S.(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87-97.
- \_\_\_\_\_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self-esteem. In P. H. Musse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 pp. 275-385. New York : John Wiley & Sons.
- \_\_\_\_\_ (1985). *Manual for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_\_\_\_\_ (1988). Developmental processe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In T. D. Yawkey & J. E. Johnson(Eds.), Integrative process and socialization early to middle childhood. NJ : Lawrence Erlbaum.
- Hartup, W. W. & Stevens, N.(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 Hetherington, E. M. & Parke, R. D.(1993). Child psychology(4th ed.). New York : McGraw-Hill
- Hodges, E.V. E., Boivin, M, Vitaro, F., & Bukowski, W. M.(1999).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on against and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94-101.
- Levinson, D. J.(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Mendelson, M. J. & Aboud, F. E.(1999).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a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31, 130-132.
- Nottelman, E. D.(1987). Competence and self-esteem during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41-450.
- Parker, J. G. & Asher, S. R.(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aisman, J. M. & Shorr, S. I.(1978). Friendship claim and expectations among child and adult's. *Child Development*, 49, 913-916.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 \_\_\_\_\_ (1985).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 L. Leah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pp. 205-246). New York : Academic Press, Inc.
- Selman, R. L.(1981). The child as a friendship philosopher. In S. R. Asher & J. M. Gottman(Eds.),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friendships*(pp.242-272).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ipek, D. J.(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their own and their classmate's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04-410.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 -Palmer Quarterly*, 40, 461-477.
- Wigfield, A., Eccles, J. S., Iver, D. M., Reuman, D. A. & Midgley, C.(1991). Transitions during early adolescence : Change in children's domain-specific self-perceptions and general self-esteem across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552-565.

(2004. 04. 18 접수; 2004. 06. 15 채택)